



제82호

www.koreacma.org

한국교회음악협회

KOREAN CHURCH MUSIC ASSOCIATION

발행인 박 영 근
편집인 김 동 민
발행일 2009. 4. 19
TEL (02)3663-0771
FAX (02)2268-8689

5월, 「한국성가합창제」 열기 속으로...

본 협회가 주최하는 2009년 한국성가합창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혼성성가합창제와 여성성가합창제로 5월26일(화)과 5월30일(토) 양일에 걸쳐 열리게 되며 장소는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진행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합창의 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며 18회째를 맞게 될 올해 성가합창제의 뜨거운 열기가 올해도 기대가 된다. 참가 신청문의는 본 협회로 하면된다. ☎ 02-3663-0771

여성성가합창제

일시 : 2009년 5월 26일(화) 오후 7:30

장소 : 영락교회 베다니홀

출연

의정부 아가페코랄, 중부연회 여선교회합창단,
두루여성합창단, 여성지휘자협회 핸드벨,
청주CBS권사합창단, 에스더선교회합창단,
서울신대 평생교육원 엔게디합창단

혼성성가합창제

일시 : 2009년 5월 30일(토) 오후7:00

장소 : 영락교회 베다니홀

출연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무학교회,
주안장로교회, 혜성감리교회, 가나안교회,
한신교회, 동신교회



광고... 4월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봄~

본 협회 사무실이전

본 협회는 그동안의 숙원과제였던 협회의 단독 사무실을 독지가의 후원으로 마련하여 지난 3월 이전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신임간사도 임명하였다.

신임간사임명 : 임은희 010-3077-0771

정회원 연회비 납부안내

정회원 연회비는 국민은행(주성희 한교음협) 043-901-04-057611

한국교회음악협회

153-800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804호

Tel : 02)3663-0771 Fax : 02)3663-0772

오시는 방법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번출구, 7호선 4번출구

제3차 학술포럼 주제 발표 2 · 장우형 교수

“경배와 찬양 위주의 예배의 교회음악, 그 평가와 변화의 방향성”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한국교회음악계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새로운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에 대한 논란을 거듭해 왔다. 지금에 와서는 이 CCM을 “기독교 대중음악” 혹은 “동시대적 기독교 음악” 내지는 “현대찬양” 등의 한국적 이름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그 뿌리가 서양, 특히 미국인 점 때문에 여전히 영어표기를 선호하고 있다.

초기 80년대의 CCM은 지금처럼 예배의 도입부분에 자리 잡는 것은 거의 염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조차 기껏해야 청소년을 중심으로 종교집회에서(즉 예배라는 표현을 쓰기 힘든 소집회) 간헐적으로 사용되었

다. 흑인들의 예배에서는 CCM과는 전혀 다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흑인영가”가 일반적인 찬송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미국 내에서의 CCM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한국교회가 청소년을 위한 예배시간을 따로 설정하고 (예를 들면 많은 교회가 주일 오후1시 예배를 청년을 위한 예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배에서 만큼은 CCM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고등부의 예배가 이런 청소년 예배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공인된 찬송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사를 보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들만의 “찬양”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대부분 악보 없는 가사를 보여 줄 뿐이고 때로는 신앙적인 동영상에 비추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악보가 없다는 것은 이 곡들이 그들에게

지난 2009년 2월 26일 본협회가 주최하는 교회음악 3차 학술포럼이 아현 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그날 발표되었던 주제발표의 내용을 시리즈로 나누어 장우형 이사의 내용부터 연재하려한다. 오랜만에 개최되었던 학술포럼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상과 음악적 소신과 반론이 펼쳐지는 좋은 자리였다. 본 내용은 본협회가 나가려는 교회음악 방향과 내용에 다를 수 도 있다.

〈편집자 주〉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이 음악을 익히는 방법이 악보를 통해서 보다는 보통의 팝송을 익히듯이 듣고 따라하는 방법에 치중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악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규적인 음악교육은 이러한 방식의 음악에 거의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이들의 찬양이 기존의 예배음악과는 차이를 두고 있고, 상당한 부분이 대중음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찬양은 더 이상 “기독교적인 대중음악”이 아니라 정규 예배에서 사용되는 “동시대적 기

독교 음악” 혹은 “현대 예배음악”(CWM: Contemporary Worship Music)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찬양이 이미 예배음악으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고, 또한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회음악이 오늘날의 컨템퍼러리 크리스천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거쳐 현대 예배음악(CWM: Contemporary Worship Music)으로 변화된 첫 번째 시도는 1964년 미국의 레이 램(Ray Rapp)이라는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포크(Folk)미사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미사(Mass For Young Americans)”를 선보임으로써 시작되었다.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하고 웅장한 미사곡만을 연상하던 사람들에게 포크음악 미사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1967년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운동이 정점에 달했다.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젊은 세대들 간에 반항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음악의 새로운 장르인 CCM이 과격해진 젊은이들의 마음



을 다소 진정시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때 미국에서 “생명의 말씀사”에 해당하는 WORD사에 전속되어 있던 랄프 카마이클(Ralph Carmichael)과 커트 카이저(Kurt Kaiser)는 가서 그대로 전하라(Tell it Like it is, Natural High)같은 청소년 뮤지컬을 통해 그리스천 음악을 거칠게나마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새로이 세워진 갈보리교회의 척 스미스목사는 그리스천 음악이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소리나 외양보다는 그 마음의 조건과 더 관련이 있음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척 스미스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그 스타일이 어떻든지 주님을 위한 음악을 만들도록 독려했다. 이 음악들은 당시의 교회음악과는 판이했으나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어서 척 스미스목사는 세상과 사회에 반항적이었던 히피들의 바에서 그들의 음악에 복음을 넣어 연주하도록 권면하고 그 연주들이 발전하면서 미국 전역에 엄청난 부흥의 물결을 몰고 왔던 마라나타 찬양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 초반 개신교부터 시작하여 1966년에는 로마 가톨릭까지 합세하여 오늘날에 이른 카리스마 운동(Charismatic Movement)과 함께 전통적 교회에서의 갱신운동으로 번져 나갔다. 카리스마 운동은 1960년 주교 데니스 베네트(Father Dennis Bennett)신부의 “아침 아홉시(Nine O’Clock in the Morning)”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루터파 목사인 해럴드 브레데슨(Harald Bredesen)이 신(新)펜테코스탈(neo-Pentecostal)을 표명하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의 카리스마적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1966년 주창함으로써

그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이 물결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게 된 예수운동(Jesus Movement)과 중첩되어서 일반 매체인 [타임]지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가 이 운동을 다루게 될 만큼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1985년경 대형 CCM아티스트 에이미 그란트의(Unguarded)라는 앨범은 백만장 이상이 팔려나가 플래티늄 앨범을 수상했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빌보드 차트 40위권에 진입하면서 오랫동안 CCM 아티스트들이 꿈꾸어 왔던 일, 즉 일반 팝 음악계에 그리스천음악을 통해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즈음인 1980년대 우리나라에 CCM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즉 카리스마적 예배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예배를 지향하는 온누리 교회와 예수전도단 등의 단체를 통해서 점차 국내 모든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규예배가 아닌 예수전도단의 화요모임에서 시작된 “찬양과 경배”는 국내에서 예배의 한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KBS의 “열린 음악회”에서 그 개념을 빌려와 “열린 예배” 즉 전통적인 예배의 상당부분을 안으면서 개혁적이며 동시대적인 찬양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예배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바로 이 “찬양과 경배” 혹은 “열린 예배”에서 사용되는 현대 예배음악(Contemporary Worship Music)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CWM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버린 음악이지만 기성세대에는 여전히 생소할대로 생소 할 뿐 아니라 여기에 가까이 다가가려해도 “많이 듣고 따라하는” 방식에 서투르고, 그나마 악보에 의한 접근마저도 거의 불가능하기에 세대 간의 갈등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생각도 기성세대가 새로운 양식의 예배음악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든지 친근감을 표명할 때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혹은 음악적으로 적대감을 가졌을 때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
- 1 랄프 카마이클과 커트 카이저는 1960년대 필자의 부친 故 장수철 박사가 이끄는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지금의 월드비전 합창단)의 오케스트라 반주를 맡아 레코딩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 2 그리스어 *προφητα* 즉 ‘선물’ 혹은 ‘은사’를 어원으로 하는 말로 고린도 전서 12-14장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은사 즉 기적[miracles]과 예언[prophecy] 그리고 방언[glossolalia]을 말한다.
 - 3 카리스마적 예배음악의 대중적 유행성과 전자매체에 의한 발전 방향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11일 본 한국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한 제2차 학술포럼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교회음악과 CCM”에서 하재은 교수가 이미 상세히 지적하였다.

2009년 획기적합창세미나 안내

7월 27(월)~ 7월 30일(목) 영락교회 베다니홀

제30회 하계대학 '획기적합창세미나'가 7월27일(월)부터 7월30일(목)까지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개최된다. 한국교회음악과 합창음악의 정상들인 각 시립합창단과 대학합창단들과 함께 펼쳐질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성가소개와 해석, 부활절 및 성탄절찬타다 소개 및 해석법, 그리고 첫 째날 모범이 되는 합창단을 초청 모범성가합창제로 음악예배를 드린다. 보다 자세한 "획기적합창세미나"의 관련문의 본 협회로 하면된다. ☎ 02-3663-0771



이 사 동 정

이경선 이사

2009년 3월 13일 원당사회복지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10년간 은빛합창단 지휘자로서 공로가 큼으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은빛합창단을 지휘하여 축하 공연

박신화 이사

- 3월10일 프리모 칸판때 정기연주회 지휘(예술의 전당)
- 3월31일 안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지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 4월12일 안산성광교회 초청연주회(안산시립합창단)7시
- 4월25일 대전 천성감리교회 세미나
- 4월27일 교회음악연주회(이화여대 김영의 홀)
- 5월22일 이화여대 음악연구소 학술대회

석성환 이사

90여명의 서울경기초교파장로들로 구성된 남성선교합창단으로 동두천 동성교회 초청연주(3월 중) 7월에는 중국순회연주를 계획

고덕환 이사

- 3월 21일 자산성결교회 찬양대 세미나 강의
- 3월 28일 현대성가포럼 세미나 강의
- 4월 12일 창립100주년 기념예배 찬양(성광교회)
- 4월 18일 CD 녹음 (산성교회) 람파스카이어
- 5월 1일 지방순회연주(태안제일감리교회) 람파스카이어
- 5월 17일 서부제일교회 초청연주 람파스카이어
- 5월 23일 안산 성가합창제 람파스카이어

이선우 이사

- 3월 21(토) 시흥 늘 새롬교회 성가대 세미나 강의

- 3월 29일(일) 서울 도곡동소재 성은교회 성가대 세미나 강의
- 5월 11일(월) 7:30 아이노스합창단 제27회 정기연주회 지휘(북한 폐결핵 어린이 돕기)

노영아 이사

- 3월28일 기독교음악통신대학 개강 수원분교
- 4월 2일 명지대학교 채플연주회 초청연주회
- 4월 12일 수원명성교회 부활절 뮤지컬 두제자
- 4월 26일 선봉대교회 초청연주회

최동규 이사

- 3월 15일 전북 오라토리오앙상블 전주성결교회 초청연주
- 3월 22일 CBS합창단 제 38회 교회순회연주회 (전주 완산교회) 지휘
- 3월 29일 익산 성산교회 찬양대 세미나 강의
- 제 6회 CBS합창단 정기연주회 기획및 지휘
- 수난음악연주회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곱 말씀" 전주 양정교회, 익산 이리신광교회, 성금요일 전주 신일교회
- 4월 14일 전주 윈드앙상블과 합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4월 21일 세계예술가연구회 멘델스존 성악곡연주회 출연예정,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4월 26일 전북 오라토리오앙상블 전주 산돌교회 초청연주 예정

손호동 이사

- 3월부터 칼빈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임용되어 교회음악과 합창을 가르침
- 3월 15일 신기중앙침례교회 찬양대헌신예배 설교 및 찬양대 특강

- 3월 22일 Choral Ensemble 일산지역 군부대 초청연주
- 4월 3일 한국장애인선교 EXPO 1, 2, 3부 지휘
- 왕성연합찬양대 지휘(올림픽홀)
- 4월 19일 안성지역 성결교회 찬양대 세미나예정
- 4월 25일 만리현 성결교회 3, 4부 찬양대 세미나 예정
- 4월 28일 Choral Ensemble 30주년 기념 연주회 (서울신학대학대강당)

윤학원 고문

3월4일~7일 미국 오를라호마에서 2009 ACDA Convention 초청연주로 인천시립합창단 연주-한국합창의 미래를 아낌없이 발휘하고 돌아오다

이병직 이사

- 4월22일(수) 선혜장애인학교(낮1시), 순천중앙교회 순회연주(오후7시)로 순천시립합창단 지휘
- 4월26일(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 서남교회 성가대 세미나 강의

김희철 이사

- 3월 20일(금) 마산시립합창단 초청연주
- 과천시립합창단 지휘
- 4월 14일(화) 월드비전 음악영화 "유엔유" 상영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오후7시
- 4월 25일(토)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지휘 오후5시
- 5월 22일(금) 과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지휘
- 과천시민회관/오후7시

윤태빈 이사

- 4월12(주) 부활절칸타타
- 뮤지컬 '두제자' 연주 저녁 7시

한국교회음악협회

- 고 문 : 구두회 광상수 백대현 이관섭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 직전이사장 : 이수철
- 이 사 장 : 박영근 ● 부이사장 : 이문승 ● 사 무 국 장 : 이대규
- 서무이사 : 고덕환 ● 재무이사 : 주성희 ● 감 사 : 박신화 이상길
- 이 사 : 강옥민 곡재국 구 천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성봉 김영호 김옥자 김은석 김철륜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백효주 석성환 안경재 안희복 여홍은 원성희 유병무 윤의중 윤태빈 이경선 이기선 이대훈 이근엽 이병직 이보철 이상훈 이선우 이원웅 이인호 장우형 전용우 전희준 천인한 최광덕 최원범 최훈차 한대근 홍관옥 홍세원 홍정표 황철의 (가나다순)
- 당면직이사 : 김민주(포항) 박종혁(대전) 석부진(경기남) 이광수(울산) 장철진(목포) 한창석(인천) (가나다순)
- 간 사 : 임은희

편집위원연락처

- 위원장 : 김동민 011-477-4488
- 위 원 : 천인한 011-469-5561
- 류현렬 011-9903-1537
- 신현민 011-9136-9985
- 원고 및 인터넷문의
- conductor@nate.com
- 기획인쇄 : 디자인심포니 02-2279-9387-8
- kapa456@hanmail.net